

“SKY캐슬”은 시장에 포섭된 가족의 민낯

전남대서 극예술학회 전국학술대회 조아름씨 ‘SKY캐슬 통해 본...’ 발표 ‘응답하라 1988’ 등 가족 재조명도

TV드라마 ‘SKY캐슬’은 IMF 이후 시장에 포섭된 가족의 모습과 아울러 관계가 제거된 실상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조아름 연구자(전남대 국문과 박사과정)가 발표한 한국극예술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나왔다.

조 연구자는 최근 전남대 이을호기념강의실에서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소장 백현미 국문과 교수)가 한국극예술학회, 전남대 인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전국학술대회 ‘한국 극예술과 가족 담론- IMF 이후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IMF 이후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은 적잖은 부침을 겪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드라마,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매체는 변화된 가족의 양상과 의미, 우리시대의 가족상 등을 모색해왔다.

근래 인기리에 방영됐던 TV드라마를 통해 가족 문제를 조명해보는 것은 가족의 양상을 진단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특히 종영된 지 얼마 안 된 ‘SKY캐슬’부터 복고 열풍을 일으켰던 ‘응답하라’ 시리즈 등 대중들의 인기가 높았던 드라마를 토대로 한 가족 담론은 가족관계와 인식의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조 연구자는 “‘SKY캐슬’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가족, 그리고 개인 인식이라는 발표문에서 IMF 이후 하나의 자본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가족의 의미를 살펴해보면서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가족이 ‘위험사회’의 도피처가 아니라 위험사회의 진원지’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선에 성군관대 박사는 토론문에서 “시정자들은 정의를 욕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고 그어진 캐릭터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최종회의 해피엔딩에서 시청자들이 착해진 한서진에 배신



IMF이후 가족 드라마는 신자유주의에 포섭돼 해체되거나 유사 가족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양상을 그렸다. 지난 2월에 종영한 jtbc의 ‘SKY 캐슬’ 장면.

감을 느낀 것은 “정의를 욕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가 막히게 현실적이라고 믿었던 드라마가 결국 허구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발견한 실망과 분노”라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기를 끌었던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 대한 조명도 있었다. 백소연 가톨릭대 교수는 발표문 ‘가족이라는 레트로토피아-텔레비전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중심으로’에서 “해체된 가족과 결집된 개인을 유사 가족의 구조 안에서 복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환기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첫 사랑과 그 성취의 서사를 통해 유사 가족이 현실 가족으로 공고화 되는 공통점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IMF라는 경제적 위기가 본격화 되는 시기를 비껴나 있는 ‘응답하라 1988’에 이르러서는 보수적 의미에서의 가족에 대한 환상이 더 강화되어 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선영 한국산업기술대 박사는 “응답하라 1988”은 복고 서사물의 신드롬을 일으킨 ‘응답하라’ 시리즈의 절정을 이루며 ‘복고 감수성’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남긴 드라마였다”고 공감했다.

여성 3대를 토대로 그린 가족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 대한 조명도 있었다. 이 드라마는 지난 2015년 김인영 작가에게 한국방송작가상을 안겨준 작품이다.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텔레비전

드라마 가족 서사의 여성 담론-‘착하지 않은 여자들’을 대상으로’에서 “남성 가정이 부재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으로 구성된 3대가 각기 다른 삶을 형성화하고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이전의 가족 서사 속 여성 담론을 다른 작품들과 다른 지점을 위치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토론문에서 김민영 중앙대 박사는 “착하지 않은 여자들’이 남성 가정이 부재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여성으로 구성된 3대가 각기 다른 삶을 형성화하고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이전의 가족 서사 속 여성 담론을 다른 작품들과 다른 지점을 위치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가족 해체의 징후와 재구성의 가능성-에니메이션 ‘천년여우 여우비를 중심으로’ (김강원 중앙대), ‘2010년대 일상툰의 가족 재현’ (구자준 연세대), ‘이후’의 가족, 연극적 치유와 정치적 주제화’ (양근에 서울대) 등의 발표도 진행됐다.

한편 백현미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소장은 “경제위기 이후 안정성 담보가 어려워지면서 가족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려는 가족주의가 나타났다”며 “한편으로 가족이 뚫뚫 뚫대기까지 올라가려는 욕망 탓에 이전투구가 벌어지는 양상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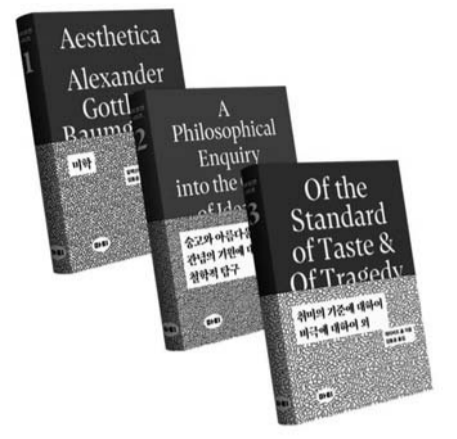
서양 미학 태동기 원전을 만나다

도서출판 ‘마티’ ‘미학 원전 시리즈’ 3권 펴내

예술이나 아름다움에 관한 물음은 주요 관심사였으나 감성적인 것에 대한 평가는 그리 후한 편이 아니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우선시하는 전통이 고대 그리스부터 18세기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율적인 예술의 등장,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과 맞물려 예술과 아름다움은 ‘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태동했다.

서양 미학 태동기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미학 원전 시리즈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도서출판 ‘마티’가 이번엔 펴낸 ‘미학 원전 시리즈’는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출현한 미학 논의를 선도한 책들이다. 알렉산더 고틀리프 바움가르텐의 ‘미학’, 에드먼드 버크의 ‘숭고와 아름다움의 개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데이비드 흄의 ‘취미의 기준에 대하여 비극에 대하여’가 그것이다. 옮긴이 김동훈은 인용문들의 원 출처를 모두 찾아 정리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준다.

먼저 1권 ‘미학’의 저자 알렉산더 고틀리프 바움가르텐은 처음으로 ‘미학’이라는 명칭을 고안하고 제목으로 썼다. 1750년과 1758년 두 차례 걸쳐 라틴어로 출간된 이 책은 독일에서는 2007년에 완역됐다. 이번 한국어판은 미학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고안됐는지 미학사상의 독창성과 정수를 보여준다.



2권 에드먼드 버크의 ‘숭고와 아름다움의 개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처음으로 아름다움과 숭고를 구분해 체계적으로 논한 경험론 미학의 고전”으로 일컫는다. 저자는 아름다움과 숭고를 어떤 대상을 체험하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귀납적 방법을 택한다.

3권 데이비드 흄의 ‘취미의 기준에 대하여 비극에 대하여’는 아름다움과 ‘감정’의 관계를 탐구한 새로운 미학이론이다. 흄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감정의 변화”다. 특히 저자는 “고통과 슬픔의 모든 특징과 외면적 증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즐거움”을 분석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수영대회 체험명소 인기

각국 대표단·방문객 늘어

올해로 개관 3년째를 맞는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각국 대표단 및 방문객들에게 ‘미디어아트 체험명소’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광주시 자매도시인 말레이시아 말라카주의 체육국장 켈크 치 에이를 비롯한 대표단이 홀로그램극장 등 미디어아트 특화 공간을 체험했다.

향후 대회 기간 동안 ‘영·호남 통일로드 시민 기자단’ 300여명이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방문해 홀로그램극장과 미디어놀이터에서 체험행사를 갖는다. 또 남원 시립 김병중미술관, 영광 교

육지원청, 전북 교육지원청 등 타 지역에서도 광주의 미디어아트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은 빛고을시민문화관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일대에 구축된 미디어아트 특화공간으로 홀로그램극장, 미디어놀이터 등 누구나 미디어아트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6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월요일과 일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상설운영하고 있다. 체험행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전화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되며 개인정보관객들은 인터넷파크·위메프·티몬에서 예매하거나 현장 매표소에서 발권 가능하다. 문의 062-670-745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넷과’ 클래식도 지원... ‘김넷과 트리오’ 창단 공연

25일...이수산·김지현·조은혜 3중주

지역 청년 미술가들을 지원해온 문화공간 ‘김넷과’가 이번에는 클래식 아티스트를 응원한다. 김넷과는 클래식 분야 신진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으로 ‘김넷과 트리오’를 결성하고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창단 공연을 갖는다.

‘김넷과트리오’는 광주 지역 클래식 연주자인 바이올린 이수산, 피아노 김지현, 첼로 조은혜로 구성됐다. 이들은 1년 동안 매달 공연무대 및 연주비를 지원받으며, 연중 1회 김넷과트리오만의 정기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게 되며 다양한 협업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리더 이수산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으로 한

국음악영재진흥원 콩쿠르 등에서 1위를 수상했다. 김지현씨는 전남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해 음악과 수석 졸업, 광주문화예술계 콩쿠르에서 금상 등을 수상했으며 독일 마인츠 국립음대를 졸업한 조은혜씨는 첼로 앙상블 ‘Unicell’ 단원을 거쳐 현재 아르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17회 김넷과 아트콘서트’를 장식하는 김넷과 트리오 창단공연에서 단원들은 포레의 ‘피아노 삼중주’, 드라마 ‘하얀겨울’ 삽입곡인 김수진의 ‘B. Rossette’,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삽입곡 ‘My Favorite Things’, 이승규의 ‘김넷과 송’ 등을 들려준다.

김넷과 설립자이자 후원회장 박현택 대표는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표무대가 부족한 음악



계, 특히 클래식 분야의 신진예술가 지원을 민간차원에서 성장시키고 향후 이들의 성장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김넷과 신진작가 창작지원 공모에 선정된 박다은(한국화)작가 소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229-3355.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한국학 보급 사업’ 31일까지 공모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은 ‘호남한국학 보급을 위한 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한국학 교양강좌’ (2개 단체), ‘한국학 전문강좌’ (2개 단체), ‘전라도천년기행’ (1개 단체) 등 3개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광주·전남 소재 대학(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인문학 분야 연구기관·법인단체·민간단체 등이다. 영리, 정치,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동일 사업 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종범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선조들의 공동체 책임정신, 생활지혜, 정신문화 역량을 발견하길 바란다”면서 “전라도정명 천년을 계기로 호남한국학이 대중에 널리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한국학호남진흥원 직접 방문, 우편·이메일 (ayun@hik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062-603-9615)에 문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어려운~ 부자되세요!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동대로11번길 6 (평화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팝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

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맛, 달달한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 010-3844-714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랜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공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신용.본위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임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차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그집고기
 북구 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상품들기
 ☎010-3906-1718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팩트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